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미국,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우려 증가

- 지난주 신용평가사 S&P가 대형 생명보험사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 가운데 버지니아 주 중소보험사인 쉐난도(Shenandoah)사가 투자손실로 지불정지(moratorium)를 선언하고 영업권을 규제당국에 이양하는 사례가 발생함.
 - 쉐난도사는 남부지역 30개 주에서 20만 개의 개인, 단체 생명보험 계약과 2만1천 개의 연금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소규모 보험사임.
 - 쉐난도사는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모기지 연계증권 투자 손실로 주 당국의 요구 자본 및 지불준비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권을 박탈당했으며, 기존 사망보험금과 연금 보험금 지급 외에 신규계약 판매를 중지하고 기존계약에서의 출금, 매각, 해약, 대출 등에 대한 지불정지를 시작함.
- 지금까지 생명보험사들의 파산은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손실로 장기간병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들에서 있어왔으나, 이제는 투자손실에 의한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.
 - 얼마 전 장기간병보험을 취급하던 시니어 헬스(Senior Health)사와 펜 트리티 아메리칸(Penn treaty American)사가 펜실베이니아 주 당국에 영업권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있었음.
 - 최근에는 많은 주요 생명보험사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으며, 애널리스트들은 계속되는 투자 손실이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함.
- 미국 보험감독관협의회 NAIC(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)은 금융시장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의 지급여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재무설계사들과 소비자들은 우려를 나타냄.
 - 뉴욕의 한 재무설계사는 현재까지 고객의 보험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약하지는 않고 있지만 보험사의 지급여력문제에 대해 고객들과 상의하는 중이라고 말함.
 - 그는 많은 대형사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새로운 고객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회사를 추천하고 있다고 밝힘.

(The Wall Street Journal, 3/16)